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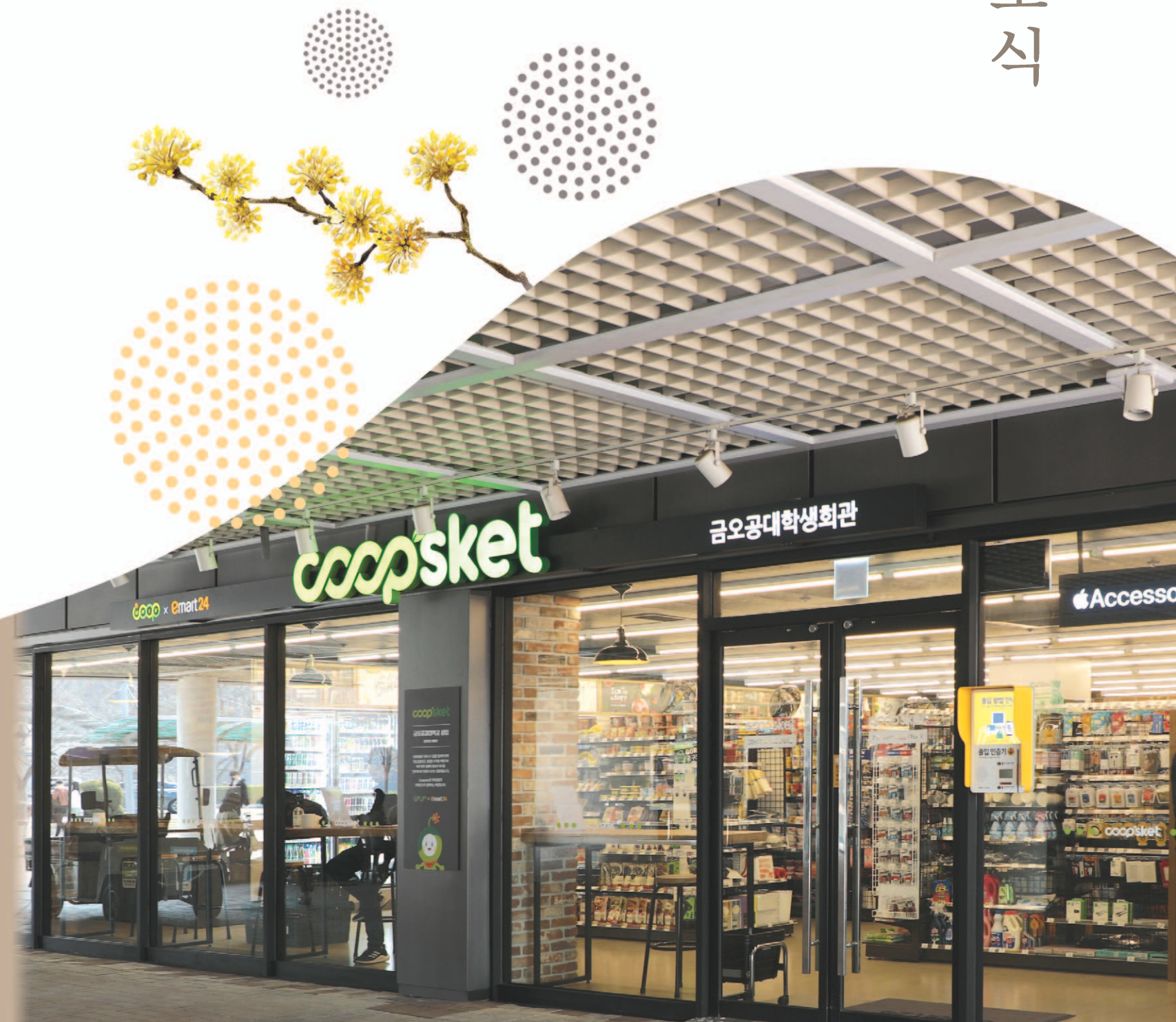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KO-AC00-000021-08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는다.

- Winston Churchill -

MARCH 2021
KUMOH LETTER
VOL. 191

금오공대 소식



39177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T_ 054. 478. 7114 / F_ 054. 478. 7100
<http://www.kumoh.ac.kr>



MARCH 2021 / VOL. 191
금오공대 소식
Kum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Letter

발행일 2021. 3. 15.
발행인 이상철 편집인 정인희 편집실무 오유진
발행처 금오공과대학교 기획협력처 054) 478-7078
주 소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디자인 애드게이트 054) 456-3434

CONTENTS

Focus

- 04 2021년도 시무식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21학년도 입학식

Special

- 10 개교 40주년 기념 최근 15년사 발간
'Global ICON' 금오 인재상 재정립
금오공대의 열린 공간들
서비스-러닝 교과목 운영

People 교수

- 16 이용환 교수, 한국정보기술학회장 선출
권기연 교수, 가현학술상 최우수논문상 수상
퇴직교수 소개
신임교수 소개

People 학생

- 18 금오편집위원회

People 직원

- 20 취업지원본부를 소개합니다.
월터 아이작슨이 쓴 「스티브 잡스」 전기를 읽고_사무국장 정시영

KIT News

- 24 2020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성과 공유회 개최
2021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선정
제31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학생역량관리시스템 명칭, 'BISKIT' 선정
2021 학년도 등록금 동결
금오올레길 조성
대구경북 1호 콕스켓 오픈

Culture

- 29 1월 안은솔 작가 초대전
2월 김동석 작가 초대전
3월 서동진 작가 초대전
2020년 Best 대출 도서
유현준 건축가 초청, '어디서 살 것인가' 특강
김상욱 물리학자 초청, '우리는 왜 과학을 해야하나' 특강

KIT Love

- 35 후원의 집 소개
발전기금 약정 및 기탁명단
기탁자에 대한 예우





“2021년
새 길을 만들어 나가는
금오가 되기를”

2021년 시무식 개최

우리 대학 ‘2021년 시무식’이 1월 4일 본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본부 보직자 및 표창 수상자 등만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으며 Webex를 통해 교내 구성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날 시무식은 정부표창 전수, 2020년 업무유공자(공로상) 표창, 총장 신년사,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은 △교무과 한상규 △총무과 김성보 △총무과 최지숙(현, 국제교류교육원) △총무과 윤종민 △기획협력과 김진주 직원이 받았으며, 직원 공로상은 △교무과 우정순 △학생과 류정희 △기획협력과 서민우 △총무과 유삼순 △산학협력과 유호상 △생활관 오지연 △공동실험실습관 권은진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권예지 직원이 받았다.

신년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역경의 순간들을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배려와 헌신의 힘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었음에 우선 금오 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도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어 주신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 무척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대학이 4단계 BK 사업에서 3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공과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고,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 대학 사업,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사업, 그랜드 ICT 연구센터 사업, 그리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선정 등으로 공학교육 혁신과 지역 동반 성장이라는 미션 수행에도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협조와 노력의 공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모든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종합설계와 그 결과물의 발표장인 엔지니어링 페어까지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열어 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빛나는 대외 수상 실적이 우리 대학의 교육 성과를 입증해 주기도 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업과 입시, 그리고 학생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이는 곳에 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밤낮으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직원 선생님들의 노력에는 거듭 감사드리며,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같이 더 힘을 내시자고 말씀드립니다.

비록 화려하고 거창한 개교 40주년 행사를 거행할 수는 없었지만, 2020년은 금오공과대학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내실을 다지며, 새로운 시대 정신을 포용하는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바로 1월 1일자로 공포된 새로운 인재상에 잘 담겨 있습니다.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제정되었던 ‘참사람, 든사람, 난사람, 큰사람’이라는 인재상이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금오 인재를 길러내는 방향 지시등이 되어 주었듯이, ‘Global ICON’이라는 새로운 인재상은 내일의 금오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의 지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수평과 수직을 아우르는 균형감을 내포한 통섭 역량을 비롯하여 소통 역량, 창의 역량, 도전 역량, 협업 역량을 갖춘 공학도를 양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전문 인재로 배출하기 위해 교수님들께서는 새해에도 좋은 교육을 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부서에서는 올 한 해 특히 인재상과 관련된 여러 시스템을 차질 없이 정비하는 데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거침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인간이 정복한 줄로만 알고 있었던 바이러스와의 전쟁과 AI로 통칭되는 기술 혁

명 속에서 새로운 삶의 질서와 가치관을 만들어 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중에 고등교육이 현재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학과가 필요하다면 과감히 투자하고, 새로운 교육방법이 요구된다면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대상으로 학생을 바라보는 대신 능동적인 학습 주체로서의 성취를 인정하면서 세상의 변화 속도에 뒤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앞서 나가기로 노력하는 오픈마인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현재의 교육 체제를 고수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비록 약간의 두려움이 있더라도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려는 용기를 내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전략이 바로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금오공과대학교가 40년의 역사 동안 걸어 온 창작성의 힘이 지난해에 유감없이 발휘되었듯이, 2021년 한 해도 창의에 창의를 다해서, 어려움이 닥친다면 이겨 나가고 길이 없다면 새 길을 만들어 나가는 금오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편 지난해 우리가 새삼 깨달은 중요한 세상의 이치 중 하나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서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인류를 지키고 함께 살아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 대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전반을 위한 애정과 지혜의 나눔, 우리나라 국토 전반의 고른 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평안을 위한 국립대학의 사명 수행, 그리고 지구촌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기 위한 공과대학으로서의 고민 또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영역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상대방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부터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금오가 되도록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의 시작과 더불어 한동안은 계속해서 순탄치 않은 날들이 이어지겠지만, 우리 금오가족이라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슬기로운 특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021년 새해 캠퍼스에 하얗게 내려 쌓인 눈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금오에게 주어진 희망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금오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4.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이 상 철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최소 인원 참여 실시간 중계
졸업생 명단 자막 송출

우리 대학이 2월 19일 본관 대강당에서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위수여 인원은 학사 1,010명, 석사 114명, 박사 17명 등 총 1,141명이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철저한 방역 아래 총장 및 보직자, 학위 수여 대표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됐다. 행사는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공개됐으며 졸업증서는 개별 등기 등을 통해 졸업생들에게 전달됐다.

학위수여식은 이상철 총장의 학위수여식사를 시작으로 하여 학사 및 석·박사 졸업증서 수여, 졸업생 대표 답사로 이어졌으며, 학사 최우수 졸업과 졸업논문상, 특별포상에 대한 상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안전한 학위수여식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내빈들이 축하 영상을 통해 졸업생들의 앞날을 격려했다.

한편, 행사 영상과 함께 전체 졸업생들의 명단을 자막으로 송출하여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의 아쉬움을 달랬다.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사

우리 모두 매우 낮설고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가장 아름다워야 할, 그리고 가장 큰 꿈을 펼쳐나가야 할 대학생활의 마지막 해를 어쩌면 막막함과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보냈겠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며 대학생으로서 이수해야 할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오늘의 영광스러운 졸업식을 맞이하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그 어느 해보다 더 뜨거운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마지막 학년이 못내 생각나고 아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2020년 한 해는 아마도 전 세계 대학의 역사에서 교육 혁신이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진 시기로 기록될 것이고, 세월이 흘러 여러분들은 그 격변의 시기 한 가운데 있었음을 추억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형태의 추억이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해를 어떻게 보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제대로 등교하지 못하고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수업과 세심한 지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스스로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진했다면, 그 결과로 이룬 크고 작은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담아 추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스스로 그다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너무 낙담하거나 크게 후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젊음이라는 큰 자산이 있고, 아직은 부족하고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 나갈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혹이라도 지난 1년, 혹은 대학 생활 전반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 새로 출발한다는 기분으로 바로 오늘의 졸업식을 그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지난해에 특히 근심과 우려가 크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입학을 해서부터 졸업까지, 병역 의무를 다하거나 휴학을 하는 시기를 다해, 마음 졸이며 지켜보신 보람의 결과로 오늘의 자랑스러운 졸업에 이르게 된 자녀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고 오늘 하루 마음껏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졸업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지도해 오신 교수님들, 그리고 행정적,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직원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감히 가행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졸업식을 오늘은 이렇게나마 간소하게,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성대하게 치를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교육과 행정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대학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사회로 나가는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한 사회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태도가,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산업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되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며 우리나라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자성인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올해 새로운 인재상을 정립하고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통섭, 소통, 창의, 도전, 협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재학생들이 갖추어 나가야 할 역량이기도 하지만, 졸업에 임한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기를 기대하는 역량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금오공과대학교 졸업생으로서 통섭, 소통, 창의, 도전, 협업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고, 부족한 역량의 보완과 우수한 역량의 유지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평생 학습을 게을리하지 말도록 당부드립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변화의 흐름이 더욱 거세어질 것이며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모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금오의 캠퍼스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창의성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미래를 잘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이제 정든 캠퍼스를 떠나 각자의 일터를 향해 씩씩하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졸업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모교 금오공과대학교는 후배들과 함께 늘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모교의 발전을 지켜보며 금오공과대학교와 함께 훌륭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19.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이 상 철

2021학년도 입학식

‘2021학년도 입학식’이 2월 26일 본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입학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여 총장과 주요보직자, 신입생 대표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학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으며, 신입생들에게는 사전 안내를 하여 함께 입학식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시간 중계 화면 하단에 입학생들의 명단을 자막으로 송출했다.

입학식은 김우석 학생처장, 금시덕 총동창회장, 광현근 발전후원회장 등의 입학 축하 메시지 영상을 시작으로 입학 허가 선언, 신입생 선서, 입학성적 우수자 및 학과 수석 합격자 장학증서 수여, 입학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신입생 대표로 입학선서를 한 컴퓨터공학과 강윤지 학생은 “입학식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개강 후 좋은 친구, 선배, 교수님들을 만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입학선서의 내용대로 대학생활도 열심히 하여 자랑스러운 금오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입학식 행사 후에는 신입생들을 위한 학부(과) 소개 및 학사 안내 시간이 온라인으로 이어졌다. 신입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 학부(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비롯해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실시간 중계로 학부 신입생 1,297명 새 출발 축하 학부(과) 소개 및 학사안내도 온라인으로 진행



2021학년도 입학식사

사랑하는 금오공과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신입생 대표들, 그리고 영상으로 입학식에 참여하시는 신입생과 학부모님들, 모두 금오공과대학교의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입생을 맞이까지 새로운 가족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아주신 입학본부와 교무처를 비롯한 행정부서 부서장님들과 직원 선생님들, 학과의 여러 교수님들과 조교 선생님들, 그리고 재학생과 졸업생 선배님들과도 이 기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는 급작스러운 감염병의 확산으로 부득이 입학식을 취소하였으나, 올해는 지난 1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입학식을 비롯한 여러 학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2020년 신입생이었던 2학년 진급생 여러분께도 지난해 입학식에서 만나지 못했던 안타까움과 더불어 환영의 마음,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1학년의 학업을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현대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수명이 100세 가까이로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인생의 전 기간 동안 가장 빛나는 시절은 20대가 아닐까 합니다. 건강한 신체가 있고,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충만하고, 그래서 지난 역사를 통해 정립된 지식 체계를 익히는 동시에 새로운 이치를 탐구하는 데 열의를 쏟아부을 수 있는 20대! 그 시기를 대학 캠퍼스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대학은 지속적인 혁신 과정을 통해 교육의 자율성 확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금오공과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학과 체제에 더해 융합전 공이나 연계전공 등을 개설하여 우리 학생들이 여러 분야로 사고를 확장하면서 첨단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과목에 있어서도 설계, 실험실습, 캡스톤디자인 등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의 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엔지니어링 페어나 졸업 후의 세상을 앞서 경험하도록 하는 현장실습 등을 통해 사회와의 접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습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교수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확대하여 자율 교육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대면 교육의 확대에 의해 온라인 학습의 플랫폼 구축과 기능 확장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대학의 문을 들어서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축복 받은 학문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미래라는 개념에 포함된 2021년의 금오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상상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교육 인프라나 교육 체제 등을 다방면으로 살펴 보며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비록 대학이 자유를 상징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동생활의 공간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며 지켜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배려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청결한 캠퍼스가 유지되도록 애써 주십시오. 또한 각종 이동기구를 이용할 때나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을 위한 배려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고 시설과 비품을 소중히 다루며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캠퍼스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와 접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수업 참여 외에도 학생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단체 생활과 팀워크를 배우고, 독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낯선 세상과도 만나 보십시오. 예전처럼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독서가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폭넓은 지식의 섭렵을 위해서는 외국어 학습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AI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인 만큼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코딩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필수입니다. 사회봉사나 지역사회 네트워킹 활동 등 학교 밖에서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활동들에 여러분들이 잘 다가갈 수 있도록 학생처나 도서관, 교수학습개발센터 등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교수님이나 조교 선생님, 직원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또는 대학 홈페이지나 학내 SNS 등의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활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노심초사 귀하게 키우신 자녀들을 오늘 금오공과대학교로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참된 인재, 국가의 내일을 책임지는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이제부터 우리 대학 전 교직원들이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잘 가르치겠습니다.

2021년 신입생 여러분!

금오공과대학교와 인연을 맺은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바로 금오의 역량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바로 금오공과대학교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부디 소중한 인연을 잘 이어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교 금오공과대학교가 함께 높이 비상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26.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이 상 철

개교 40주년 기념 최근 15년사 발간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 역사 수록
일반사 등 총 5개 부분으로 나눠 구성



우리 대학이 개교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금오 공과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 최근 15년사’를 편찬하여 발간했다. 집필범위는 2005년 1학기부터 2020년 1학기까지로 16명의 집필위원과 10명의 편찬위원, 15명의 실무위원이 참여했다.

최근 15년사는 제1장 일반사, 제2장 대학기구와 인프라, 산학협력시설 및 부속시설, 제3장 교무 및 학사, 제4장 연구, 학술 및 산학협력, 제5장 학생활동 및 장학, 후생 복지,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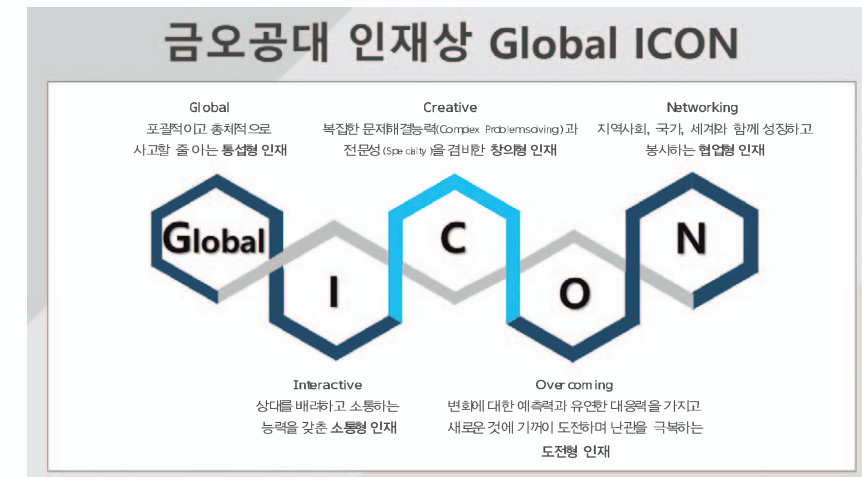
제1장 일반사는 총장 재임기간별로 총 4개 부분으로 구성됐고 제2장에서는 대학기구의 변천과정, 그리고 양호동 캠퍼스에서의 인프라 구축과 산학협력단 출범에 의한 산

학협력시설 및 부속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제3장과 제5장은 교무 및 학생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각각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제4장에서는 연구 및 학술활동과 더불어 산학협력의 항목을 추가하여 서술했다. 기존에 우리 대학에서 편찬한 5년사, 15년사, 그리고 25년사에는 신평동 캠퍼스에서의 우리 대학 발전과정이 수록돼 있는 반면, 최근 15년사에는 양호동 캠퍼스에서의 발전 과정이 중점적으로 담겨져 있다.

우리 대학은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1980년 개교하였으며, 1990년 국립대학으로 전환, 1993년 금오공과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2004년 12월 양호동 신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해 지난해 개교 40주년을 맞이했다.

‘Global ICON’ 금오 인재상 재정립

통섭 · 소통 · 창의 · 도전 · 협업 역량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인재 의미



우리 대학이 개교 40주년을 맞아 금오 인재상을 ‘Global ICON’으로 새롭게 재정립했다. 세계를 대표하는 인재를 뜻하는 Global ICON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Global’은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통섭형 인재, ‘I’는 Interactive의 약자로 상대를 배려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갖춘 소통형 인재, Creative의 약자인 ‘C’는 복잡한 문제해결(Complex problem solving) 능력과 전문성(Specialty)을 겸비한 창의형 인재를 의미한다. Overcoming을 뜻하는 ‘O’는 변화에 대한 예측력과 유연한 대응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기꺼이 도전하며 난관을 극복하는 도전형 인재를, ‘N’은 Networking의 줄임말로 지역사회, 국가, 세계와 함께 성장하고 봉사하는 협업형 인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재정립된 인재상은 참된 인성과 봉사정신(참사람), 전문지식과 실천적 능력(든사람), 도전정신과 창조적 사고(난사람), 글로벌마인드와 리

더십(큰사람)을 뜻했던 기존 인재상과의 연계성도 유지했다. 인재인증제도 변경 및 학생역량개발시스템의 구축 완료 시까지는 기존 인재상과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금오 인재상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립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2019년 7월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재상 연구를 시작으로 두 번의 교내·외 설문조사와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기획위원회와 교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2021년 1월 1일자로 공포됐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Global ICON’이라는 인재상을 바탕으로 통섭, 소통, 창의, 도전, 협업 역량을 갖춘 공학도를 양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무한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다 아이디어팩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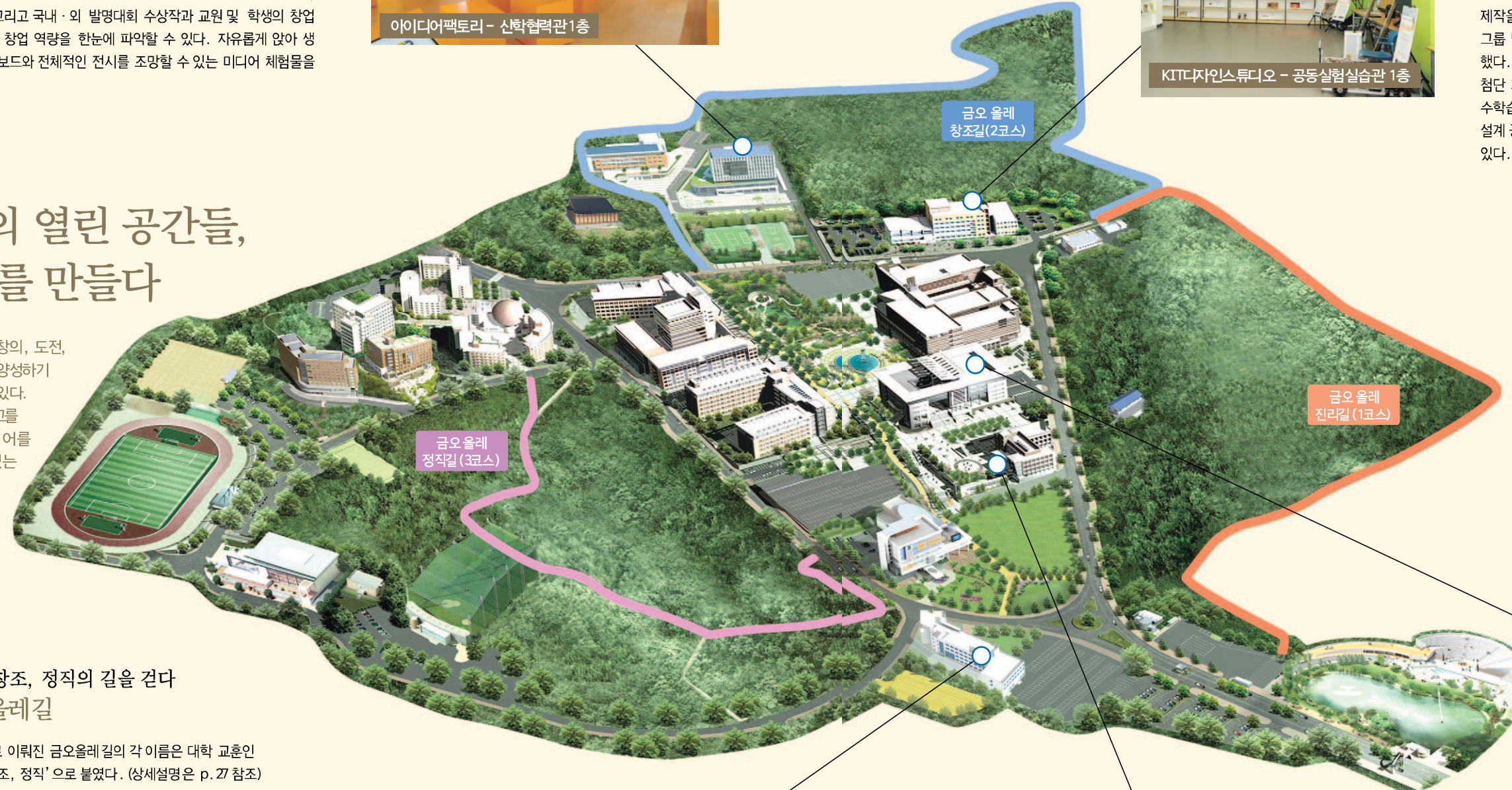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조성된 아이디어팩토리는 지난해 12월 산학협력관에 문을 열었다. 연면적 422㎡의 공간에는 대학의 대표적인 특허와 발명들,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 성과, 그리고 국내·외 발명대회 수상작과 교원 및 학생의 창업 현황 등이 전시돼 있어 대학의 창업 역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자유롭게 앉아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보드와 전체적인 전시를 조망할 수 있는 미디어 체험물을 비롯해 VR 등도 설치돼 있다.



아이디어팩토리 - 산학협력관 1층

금오공대의 열린 공간들, 미래 인재를 만든다

우리 대학에는 통섭, 소통, 창의, 도전, 협업 역량을 갖춘 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학생들이 새로운 시각과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열려있는 금오 캠퍼스의 공간들에 대해 알아보자.



금오올레 정직길 (3코스)

금오올레 창조길 (2코스)

금오올레 진리길 (1코스)

진리, 창조, 정직의 길을 걷다 금오올레길

총 3코스로 이뤄진 금오올레길의 각 이름은 대학 교훈인 '진리, 창조, 정직'으로 붙였다. (상세설명은 p. 27 참조)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다. 예비 창업자의 공간 메이커스페이스

예비창업자 및 창업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시제품제작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외부전문가 초청 특강, 글로벌 스타트업 벤치마킹도 함께 열린다. 뿐만 아니라 학생 창업자 출신의 멘토단 발굴 등을 통해 장비 사용법 교육 및 운영,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메이커스페이스 - 벤처창업관 1층



KIT디자인스튜디오 - 공동실험실습관 1층

창의설계교육의 내실화를 다지다 KIT디자인스튜디오

창의설계교육 내실화를 위해 2014년 문을 연 디자인스튜디오는 다 학제 융합형 인재양성 교육을 위한 자율 설계 실습실이자 설계 작품 제작을 위한 전용공간이다. 423㎡의 공간은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소 그룹 및 대그룹 모임, 설계 및 조별 토론 모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 3D프린터와 레이저 가공기, 광학현미경, 소형공작기계 등 교수학습에 필요한 14종의 각종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개방형 융합 설계 공작실로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

공부와 쉼의 경계를 허물다 공감마루

오는 4월 중 문을 여는 공감마루는 창의활동과 협력적 학습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도서관 1층에 130㎡의 규모로 완공됐다. 공감마루의 포인트는 공부와 휴식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인테리어를 통해 공간을 구분하면서도 결합할 수 있도록 가구를 배치해 학습과 쉼의 분리 및 결합이 자유롭게 했다.



공감마루 - 도서관 1층

지역시민과 함께 문화를 끌어안다 금오공대갤러리

금오공대갤러리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예술 작품의 전시와 강연 등이 이뤄지고 있다. 2015년 3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신진 및 중견 작가 발굴을 통해 지역시민들이 회화, 조각, 설치미술 등 넓은 스펙트럼의 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교내 학생회관에 위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서 무료로 운영하여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금오공대갤러리 - 학생회관 B1층

전공과 봉사를 통합한 서비스-러닝 교과목 운영 “서비스-러닝 수업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배웁니다”

‘전공’과 ‘봉사’를 통합한 실천적 교과목으로 주목
소재디자인공학전공, 교내 첫 운영



“우리 헤어숍에 대한 금오공대 학생들의 인식 조사 및 매출 증대를 위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 이용 고객과 운영 시간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또 현재 상황에 따른 마케팅 전략까지 제안을 받아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가에서 헤어숍을 운영하고 있는 최성복 대표(52세)는 지난 1월 초, 금오공대 학생들이 ‘서비스-러닝’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분석 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헤어숍의 이용 현황과 매출 증대를 위한 제언 등이 담겨 있다.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금오공대의 ‘서비스-러닝’ 교과목은 학생들의 실천적 지식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공과 봉사를 통합한 프로그램으로 금오공대에서는 소재디자인공학전공의 ‘마케팅리서치’ 과목(담당교수 정인희)에서 이 과정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마케팅리서치 과목은 리서치 방법과 통계 기초 학습을 통해 시장 및 소비자를 이해하는 마케팅 전략 수립 수업으로, 2020학년도 1학기 한 학기 동안의 기획 과정을 거쳐 2학기에 첫 운영을 시작했다.



수업에 참여한 화학소재공학부 소재디자인공학전공 구자현, 이석환 학생은 “지역사회와 관련된 주제 선정을 위해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받은 학교 앞 헤어숍을 클라이언트로 정하게 되었다”며,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주제를 정하고 조사한 후, 통계 분석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학기 수업을 들은 18명의 학생들은 2인 1조로 팀을 이뤄 학내·대학가·사회적 수요의 영역 안에서 △대학 통학 버스에 대한 질 개선 및 만족도 조사 △헤어숍 매출 증대를 위한 학생 인식 조사 및 분석 △젊은 세대들의 전통시장 인식과 개선 △COVID19 전담병원 인식 조사·분석 등 다양한 주제로 마케팅리서치를 실시했다.

김남윤, 마강한 학생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포항의료원을 직접 찾아 악화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COVID19 전담병원 인식 조사’를 수행했다. 학생들은 방역과 홍보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가 병원 재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학생들의 다양한 리서치 결과들은 교내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서비스-러닝(Service-Learning) 교과목 운영 결과 발표회’를 통해 공개됐으며 책자로도 제작해 클라이언트와 공유했다. 금오공대는 앞으로도 교내 공모를 통해 ‘전공’과 ‘봉사’를 통합한 서비스-러닝 교과목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통학버스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학생처 최호영 주무관은 “박유진, 하우석 학생의 대학 통학버스에 대한 질 개선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학생들과 운전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추후 노선조정 등 관련 사안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인희 교수는 “전공에 기반한 지식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 내용이 사회로 환원되는 간접 경험과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성과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적 교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공학부 이용환 교수, 한국정보기술학회장 선출

전자공학부 이용환 교수가 '제14대 한국정보기술학회'에 선출됐다. 이용환 교수는 지난달 24일 열린 사단법인 한국정보기술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2002년 창립된 (사)한국정보기술학회는 대학, 연구소, 산업체 및 국가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3,300여 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폭넓은 학술 교류의 장을 만들어 왔다. 또한 한국정보기술 관련 전문적 지식의 전파와 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논문집과 학회지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이용환 교수는 “도움을 주신 우리 대학의 많은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학·연·산·관의 가교 역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급변하고 있는 정보기술 시대에 한국정보기술학회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산업공학부 권기연 교수, 가헌학술상 '최우수논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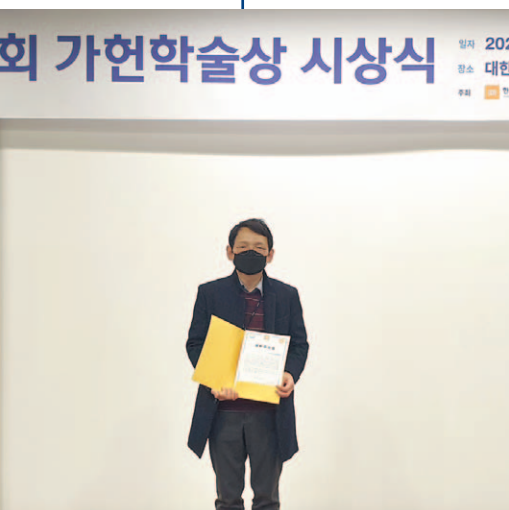
산업공학부 권기연 교수가 지난 2월 24일 열린 '2021 한국CDE학회'에서 가헌 학술상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가헌학술상은 2D&3D 전문 기업 신도리코가 설립한 가헌신도재단과 한국CDE(Computational Design and Engineering)학회에서 주최하였으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연구지원금 천만 원과 기념패가 수여됐다.

권기연 교수는 김병철 한국기술교육대 기계공학부 교수와 함께 연구한 '선박 곡부재 계측 포인트에 대한 곡면 모델링 방법'에 대한 논문(2020 한국CDE학회 논문집 25권, 3호)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은 선박 건조과정에서 가공이 가장 어려운 선수미 곡부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더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한 논문이다.

권기연 교수는 해당 산업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 2016년 우리 대학에 부임한 후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국내·외 학술지에 2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한편, 1995년 설립된 한국CDE학회는 다학제간 정보기술(IT)융합 학회로 기계·자동차·조선·산업·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헌학술상은 신도리코 비영리 법인인 가헌신도재단이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CDE 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퇴직 교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 02. 28. 자



화학소재공학부
장진해 교수



신소재공학부
정순욱 교수



기계공학과
김경훈 교수



교양교직과정부
윤희수 교수

[신임 교수]

신임 교수님, 환영합니다.

2021. 03. 01. 자



전자공학부
노정훈 교수



전자공학부
신재욱 교수



산업공학부
김민준 교수



화학소재공학부
이은호 교수



기계공학과
송화섭 교수



광시스템공학과
이상훈 교수



메디컬IT융합공학
엄지용 교수



응용화학
김형준 교수



경영학과
김현옥 교수



교양교직과정부
김동현 교수



교양교직과정부
문진아 교수

금오편집위원회



Interviewee
금오편집위원장
강가빈 (기계시스템공학과 · 4학년)

금오편집위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금오편집위원회는 금오공대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 대학의 개교와 함께 창설되어 학내 학생 자치단체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2021학년도 신입생 차장단을 뽑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사무국, 총무국, 기획국, 교육국, 취재국, 홍보국, 편집국의 총 7개 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국마다 국장과 부장이 1명씩 있고 편집국에는 부장이 2명으로, 위원장 포함하여 총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년으로 보면 2학년 3명, 3학년 5명, 4학년 8명으로 구성됩니다. 많은 신입생들이 지원해 올 한 해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교내 · 외 소식들을 심층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한 해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들에 대해 취재 및 조사를 해 둔 다음 연말이 되면 그 동안의 자료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묶게 됩니다. 교내 학생 자치 단체 및 동아리 소개를 비롯해 다양한 소주제들로 구성된 이야기들을 모아 약 130여 페이지의 교지로 만듭니다.



교지의 상세 구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장 최근 발간된 교지를 기준으로 하면 크게 학내, 문화, 사회, 취업, 탐방, 마무리 등 총 6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학내’는 학생 자치 단체 및 동아리 소개, ‘문화’는 우리 대학 축제와 학생 혜택, 교내 외 숨은 명소 소개, ‘사회’는 대학생들이 알아야 할 사회 이슈, ‘취업’은 학과 소개 및 취업 준비 방법 등, ‘탐방’은 교지 구성원들이 직접 탐방을 다녀온 기행문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글에 금오편집위원회 모든 인원들의 소감과 인사글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취재 및 탐방을 위해 학교 밖으로 나갈 때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시민들의 무관심입니다.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설문인데 대면으로 직접 목소리를 듣고자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무관심이라는 벽에 부딪힐 때 가장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치유도 사람들 덕분에 되는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설문에 응해 주시고 건네 주시는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에 다시 용원을 받아 더욱 열심히 취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하면서 느낀 금오편집위원회의 장점이 있나요?

하나의 주제를 정해 취재하고 글을 쓰는 일이 학교 수업과는 다른 색다른 재미를 가져다 줍니다. 전혀 만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금오 편집위원회 구성원들과 함께 회의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나 이슈들에 대해서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어 좋은 것 같습니다.

교내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일 년에 한번 교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활동이어서 큰 활동이 없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교지에 담을 내용들을 구상하고 취재하며 묵묵히, 그리고 조용히 저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쌓아가는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교지는 교내 구성원들이 관심 있게 봐주실 때 가장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지를 만드는 것이 대학 자치언론단체인 금오편집위원회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금오편집위원회 목표가 있나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의 책으로 교지를 만들어 교내 구성원들에게 직접 배부하였지만 올해는 e-book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더 많은 학우들에게 다가가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학우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교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올해 금오편집위원회의 목표입니다.

나에게 금오편집위원회는 OOO이다.

오병현 (경영학과 18학번)
금오편집위원회는 나에게 Key다.
나의 목표(상자)를 열 수 있는 하나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이효진 (소재디자인공학전공 17학번)
금오편집위원회는
나에게 크리스마스다.
그때쯤 교지가 나오기 때문이다.

전영훈 (산업공학부 18학번)
금오편집위원회는 나에게 알집이다.
풀면 풀수록 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우진 (산업공학부 17학번)
금오편집위원회는 나에게 향해다.
늘 새로운 경험으로 가슴을 뛰게 만들기 때문이다.



취업지원본부를 소개합니다.

양질의 취업 지원 서비스로 취업 역량 UP!

취업지원본부는 우리 대학 학생들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해 원활하게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다. 1989년 5월 학생처 취업복지과로 설치된 이후 취업보도실로 바뀌어 운영되다가 2003년 9월 취업정보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대학의 취업 지원과 관련된 역할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2012년부터 취업지원본부로 확대 개편되어 취업 지원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취업지원본부 산하로 현장실습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직무체험과 현장실무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2019년 6월부터는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취업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취업지원본부 이수형 팀장은 “학생들이 원하는 곳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신의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취업지원본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외부로는 취업 수요처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내적으로는 양질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 말했다.

현재 취업지원본부에서는 학년별 취업지원의 체계화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9학년도부터는 ‘진로교육 비교과과정’을 졸업 요건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비교과로 시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은 그 동안 고학년 위주로 진행된 취업교육 및 취업전략 지도 등을 1~4학년 전학년 진로교육 과정으로 변경·적용한 것이다.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진로교과목 운영을 통해 학년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과별 취업활성화 및 학생취업지도 강화를 위한 취업코디네이터교수제를 비롯해 취업성공 전략을 위한 취업특강과 채용설명회 그리고 기업리크루팅 등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체계적인 취업준비를 위해 매년 1,500부의 취업종합가이드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및 기술 자격증 데이터서비스도 제공한다. 취업지원본부 홈페이지를 연동해 이용 가능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주요대기업(삼성/엘지 등 23개) 및 공기업(한전/한수원 등 17개) 온라인 직무적성검사 모의시험과 자기소개서, 면접가이드 및 면접후기를 비롯해 건설기계기사,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기술자격증 35종의 동영상 강좌가 제공되고 있어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준다.

이수형 팀장은 “취업지원본부는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각종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혼자서는 힘든 서류 클리닉과 모의 면접 등을 통해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힘들었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매년 500여 건의 상담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취업지원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를 통해 저학년부터 잠재능력과 자질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며 학생들이 취업지원본부를 적극 이용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체계

단 계	프로그램명	특 징
자기이해/진로계획(전학년)	취업가이드북제공	저학년을 위한 취업정보제공
	취업/진로상담	전학년 취업진로 계획 작성 및 상담
	진로교육	전학년 학년별/단계별 진로교육 시행
취업핵심역량개발(3, 4학년)	취업동아리 지원	비교과 영역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
	취업특강	기업체의 최근 구직동향 파악
	기술자격증 학습DB	기술자격증 학습DB 365일 24시간 제공
	대기업직무적성검사 학습DB	대기업직무적성검사 학습DB 365일 제공
	AI자소서 첨삭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온라인 AI자소서 첨삭 서비스 제공
취업핵심역량개발(4학년)	코멘트 시스템	온라인 현장자 취업멘토링 서비스 제공
	대기업직무적성검사의 시험	모의 시험을 통해 대기업 취업 경쟁력 증진
	대기업 취업대비특별반	사전교육으로 대기업의 취업을 향상
	여대생 취업대비특별반	여대생 취업을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취업 및 구직활동(4학년)	진로교육 심화과정	자소서, 면접, 스피치 등 취업향상 교육 실시
	취업 1:1 맞춤형 컨설팅	개인스펙을 기준으로 맞춤형 취업컨설팅
	취업캠프	비교과 영역의 역량 강화로 단기 집중 교육
	채용설명회 및 리크루팅	기업체 정보제공 및 모의 면접 시행
취업제도	취업홍보 활동	교수들의 기업 방문으로 사전 취업 알선
	채용정보 등록/제공	각 분야 채용정보 등록/제공으로 입사지원 촉진
현장실습	취업코디네이터교수제 운영	취업활성화 토론/협의/제도 개선(각 학과 교수)
	현장실습 지원	단기/중기/장기 취업연계형 현장실습(학점연계 운영)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을 목표로 현장실습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운영 및 개선, 현장실습 수요조사, 참여기업 발굴 및 관리, 현장실습 사전교육 및 지도, 현장실습생의 취업지원 활동, 현장 실습 운영결과 평가 분석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R&D 인력 조기 확보 및 현장실습 학생의 채용 유도로 신규직원의 재교육 비용 감소 및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매년 진행 되는 현장실습에는 150여 개 지역기업과 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은 대학의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취업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최장 5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7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우리 대학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통해 △학년별 진로교육 의무화 △대구·경북권 연구기관 연계 R&D 현장실습 시행 △창업지원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하고 있다.

취업성공을 위한 실천과제

- 인·적성 검사 및 각종 심리검사를 통한 개인별 흥미적성 파악
-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통한 학습계획 수립 및 진로/대학생활 설계
- 희망 이력서 작성을 통한 취업목표 설정
- 3학년~4학년 전공/심화/응용/설계과목 수강(전공학점 관리 철저)
- 회화 중심의 외국어 학습(1~2학년) 및 외국어 성적 취득(3학년)
- 전공 관련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3학년 2학기~4학년 1학기)
- 비교과영역 활동(1~3학년: TRZ, 공모전/경진대회, 특허출원, 전공동아리, 연구보조 참가 등)
- 전공/직무 관련 인턴, 현장실습 및 학교 외 기관 직업교육 체험(NCS 및 직무 중심 채용 트렌드 대비)
-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취업캠프, 취업특강, 취업동아리 참가(취업지원본부 프로그램 활용)
- 대기업/공기업 직무종합적성검사 모의시험 참가(취업지원본부 프로그램 활용)
- 입사서류 작성법 및 면접(역량, PT, 토론, 영어 등) 대응력 Skill-UP

윌터 아이작슨이 쓴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읽고

사무국장 정시영



출생 및 성장 과정

스티브 잡스(1955~2011)는 혁신의 아이콘이다. 그는 30여 년에 걸쳐 세상의 트렌드를 바꾸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잇달아 출시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시장 가치가 높은 기업, 애플을 창업한 인물이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병상에 누워서 한 말처럼, 그는 비즈니스의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본 사람이고, 성공의 상징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비춰진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면이 많다. 태어나자마자 입양되었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어릴 적에 양부로부터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았고, 그것이 그의 평생의 정신적 트라우마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도 23세 때 혼외로 낳은 딸을 5년 동안 방임했다가 다시 찾아온 적이 있다. 그의 지인은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라는 말로 그의 행태를 설명하였다. 입양의 영향 때문인지, 그의 성격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컨트롤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했다.

다행인 것은 그가 좋은 양부모를 만났다는 점이다. 잡스의 생모는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이슬람 종교를 가진 시리아 출신 박사과정 원우와 결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부모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둘은 시리아여행 중에 잡스를 임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엄격한 부모의 반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미혼모 위탁소에서 잡스를 낳아 조용히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단, 생모는 입양하는 양부모가 대졸 출신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처음에 입양의사를 밝힌 어느 부부는 딸을 원한다는 이유로 잡스의 입양을 취소하였다. 그후 그를 입양하기로 한 사람(폴 잡스)은 고교 중퇴자였다. 생모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입양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몇 주간을 버텼다. 그러다가 양부가 아이를 나중에 대학에 보낼 것이라는 각서를 써주고 나서야 입양문서에 서명을 하였다. 공교롭게도 결혼을 반대하던 생모의 아버지는 잡스의 입양이 마무리된 지 2주 후에 사망하였다. 생모는 그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생부와 결혼식을 올렸고, 생부는 그 이듬해 위스콘신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둘은 나중에 잡스의 혈육인 여동생(모나 심슨, 1957년생으로 하버드 대학 졸업 후 UCLA 영어과 교수로 재직 중)도 한 명 더 낳았다. 이후 그들의 생부모는

이혼을 하였다. 잡스는 생모와 생부에 대해 “그들은 단지 나의 정자와 난자 은행일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일축하였다.

그의 성장과정에는 양부의 정성과 헌신이 있었고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자동차 정비 업무를 하면서 번 돈의 일부를 모아 적금을 들었다. 그리고 훗날 대학 가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잡스를 설득하여 리드 대학에 보냈다. 생모의 입양조건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었다. 하지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하고 말았다.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고생하면서 자신의 학비를 댄다는 부담 때문이었다. 양부는 어릴 때부터 스티브 잡스가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를 ‘특별히’ 키우려고 애썼다. 잡스는 초등학교 시절 말쑥꾸러기에 가까웠다. 양부는 선생님의 호출을 받아 학교에 간 적이 있는데, 그는 “그 나이 때는 다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적극 변호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입양차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잡스에게 “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를 특별히 선택한 것이란다”라는 말로 그를 위로하면서 정체성을 바로 잡아주려 애썼다. 잡스는 학교 공부보다 전기전자에 관심이 많아 방과 후에 개설하는 전기전자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때 양부는 그를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차로 데려다 주었고 마치면 데리고 왔다. 양부는 잡스가 어릴 적에 기계 수리나 집 주변 펜스 설치 작업을 할 때 그를 데리고 다녔는데, “물건이나 집을 수리할 때는 보이지 않는 뒷부분도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직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것이 잡스의 제품 철학에도 반영되었다.

잡스는 대학시절 선불교와 환각제(LSD)에 심취하였다. 특히, 선불교에 심취하여 인도 여행도 다녀온 적이 있다. 양부모는 잡스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보내려 했지만 잡스는 아프리카 기아 어린이가 나오는 장면을 본 후 목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굶는 아이들이 있는가요?”라고 묻고는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세상을 바꾼 혁신가였다. 인문학, 특히 셰익스피어와 헤밍웨이의 소설을 좋아했다. 그러면서 전자공학을 독학으로, 때로는 스탠포드대학교의 물리학 수업을 청강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였다. 자유롭고 융합적이며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그의 다양한 발명품으로 이어졌다. 그는 분명히 천재였다. 하지만 천재는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실리콘 밸리의 집단 지성, 자유로운 당시의 문화(히피 문화), 친부모의 유전자, 그리고 양부모의 헌신적 가르침 등이 복합적으로 잡스의 성격과 재능을 형성했다. 우리사회는 틀에 맞는 표준화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면 부정응자, 낙오자로 지나치게 일찍부터 낙인을 찍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창의적이고 세상을 바꾸는 인재가 나오게 하려면 좀 더 허용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실패에도 관대하고 그것을 자산으로 인정

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야 우리나라에도 제2의 잡스가 나올 것이다.

그의 핵심 철학과 유산

애플의 핵심 철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콘텐츠의 통합이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달리 폐쇄적 운영체제를 고수하였다. 다시 말해 매킨토시 운영체제를 다른 회사가 만든 하드웨어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빌 게이츠는 이를 비판하였지만 어쨌든 잡스의 완벽주의와 통제에 대한 집착이 폐쇄적 운영체제를 유지하게 하였고, 마침내 2010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가치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교차 지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엔지니어의 작품을 디자이너가 맞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엔지니어가 구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제품들은 단순성, 간결함, 순수성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적인 철학이 바탕이 되어 있다. 그의 기술적 지식과 인문 예술적 소양이 애플을 세계적인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마치 우리나라 교육도 학사구조의 유연화와 더불어 융합적 지식의 제공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는 30여 년에 걸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출시했다. 애플 II, 매킨토시, 토이 스토리, 맥스 라이프 등 애니메이션 영화, 애플스토어, 아이팟, 아이튠스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아이패드, 아이클라우드,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애플. 잡스는 비록 떠났지만, 그는 자신의 DNA를 애플에 주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2011년 10월 16일 스탠포드대학교 메모리얼처에서 열린 그의 장례식에는 빌 클린턴, 빌 게이츠, 엘 고어, 스티브 워즈니악 등 100여 명의 조문객이 함께하였다. 장례식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가 1997년에 애플로 복귀하여 만든 광고 내용이 잡스의 육성으로 나왔다. “Think different”(문법적으로는 부사인 differently가 맞지만 어감상 ‘different’가 ‘다른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 광고의 마지막은 이 책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잡스의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보고 미쳤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천재로 봅니다.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미친 자들..., 바로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잡스는 젊은 시절 반문화적 생활을 하였고 혼외자를 5년간 방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그는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 책의 전기 작가는 그를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디슨, 아인슈타인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집중력, 끈기, 인문·예술과 공학의 융합, 그리고 혁신을 향한 도전과 열정이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legacy)이 아닐까 생각한다.

“혁신을 향한 도전과 열정이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legacy)이
아닐까 생각한다”

2020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성과 공유회 개최

국립대학 육성사업 64개,
대학혁신지원사업 67개 단위 사업 성과 공유
우수사례 발표 및 확산



‘2020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실적 발표 공유회’가 1월 21일 열렸다.

이번 발표회는 2020년 사업기간(‘20.3.1. ~ ‘21.2.28.) 동안 진행된 각 사업의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서 팀장 및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회에서는 대학원의 ‘미래연구자 자기주도 연구 활동 지원’을 비롯해 교무처의 ‘스마트 강의실 구축’, 기획협력처의 ‘인문·사회·예술·공학 통섭 기반 교과목 운영’, 학생처의 ‘소통 리더십 캠프’,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법 특강 및 소규모 학습법 워크숍’,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연구실 레지던트 프로그램’, 창업교육센터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 워크숍’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들에 대한 추진 경과와 사업비 집행 현황, 환류 계획 등이 공유됐다. 첫 사례로 발표된 교무처의 스마트 강의실 관련 사업은 각 학부(과)의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 8월 121실의 학습실이 구축된 사업으로 자율탐구기반 교육 및 코로나19 확산 대비를 위한 원격(병행) 수업의 기본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이어 열린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공유회의 지역사회 기여 부분에서는 사무국의 ‘금오봉사 DAY’와 기획협력처의 ‘지역사회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신평동 캠퍼스)’ 관련 사업 등이 발표됐다. 고등교육 기회 확대 부분에서는 학생처의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과 국제교류교육원의 ‘지역 외국인 정착 교육 지원’,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에서는 입학본부의 ‘공동 입학설명회’와 창의지식재산센터의 ‘대구·경북 권역 대학 특허 페어’ 등의 사업 추진 현황이 공유됐다. 특허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부분에서는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캡스톤 프로젝트 성과공유 박람회’ 및 취업지원본부의 ‘취업집중교육’ 등이 발표됐다.

2월에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과 공유회 및 포럼이 열려 부서별 추진 사업에 대한 추가 성과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됐다. 참석자들은 사업 목표 달성 여부 및 우수한 점과 보완점, 그리고 기대효과 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구·경북권역 주관기관 역할 수행

대학의 우수한 기술 전문가와 기업 매칭, 애로기술 해결

우리 대학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됐다.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R&D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우리 대학은 지난 2017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120여 건의 산학협력 과제를 수행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우리 대학을 비롯해 총 9개의 권역별 공학컨설팅센터를 선정했다. 대구·경북권역 주관기관인 우리 대학 중소기업공학컨설팅센터(센터장 김태오)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년간 전국 공학컨설팅센터 운영위원회의 총괄운영기관으로 사업의 실효성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김태오 중소기업공학컨설팅센터장은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지역 기업과 대학의 우수한 기술 전문가를 매칭하여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학의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기업과 함께 산학협력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선정

제31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열려

총 42명 수료, 발전기금 700만 원 전달



우리 대학 2020학년도 제31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이 2월 19일 교내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열린 수료식에는 이상철 총장과 최이준 산업대학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 42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은 수료증 및 표창장(공로상, 모범상, 봉사상, 특별상) 수여, 이상철 총장의 수료식사, 김재일 26대 최경총동창회장 및

권순웅 31기 원우회장의 축사와 답사, 발전기금 전달 순으로 이어졌다. 31기 수료생들은 이날 수료식에서 대학 발전을 위한 뜻을 모아 7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우리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은 지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발굴과 육성을 위해 1992년 문을 열어 현재까지 1,53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학생역량관리시스템 명칭, 'BISKIT' 선정

홈페이지 선호도 조사 통해 선정
'Best Interaction System KIT' 의미 담아



우리 대학 학생역량관리시스템의 명칭이 'BISKIT(비스킷)'으로 선정됐다. BISKIT은 Best Interaction System KIT의 약자로 교과·비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명칭은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거쳐 평가위원회 회의 및 홈페이지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1월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20개 작품이 응모됐으며, 이 가운데 최종 후보에 오른 2개 작품 중 BISKIT이 홈페이지 설문조사에서 69.1%의 호응을 받아 학생역량관리시스템의 최종 명칭으로

선정됐다.

학생역량관리시스템은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자기주도 활동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비교과 영역 활동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새롭게 재구성된 대학 인재상인 'Global ICON'과 그에 따른 핵심역량(통섭·소통·창의·도전·협업)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재학기간 동안 학생의 진로 및 경력 목표를 관리하고 역량 설계를 지원한다.

2021학년도 등록금 동결

학부 공학계열 한 학기 180만 원대
지난 2009년부터 13년째 동결



우리 대학이 202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했다. 우리 대학은 교육비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13년째 등록금 동결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계열별 학부 등록금은 한 학기 기준 △공학계열 189만6,200원 △이학계열 176만8,200원 △인문사회계열 170만200원이다. 학부 입학금은 2018년부터 폐지됐다. 대학원 등록금도 동결했다.

대학원 등록금은 재학생 기준으로 △공학·인문사회 계열 232만9,000원 △이학계열 212만1,000원(※ 산업·교육·컨설팅 대학원 별도 책정)이다.

2020년 정보공시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학 재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은 280만 원, 연평균 등록금은 377만 원으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이 74%에 이르고 있다.

금오올레길 조성

총 3코스 진리, 창조, 정직길
2.5km 트레킹 코스로 대학 접근성 강화



대학 접근성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금오올레길 조성이 완료됐다. 총 3코스로 이뤄진 금오올레길 이름은 대학 교훈인 '진리, 창조, 정직'으로 붙였다.

1코스 진리길은 아외음역당에서 두레관(1km), 2코스 창조길은 두레관에서 다목적운동장 앞(1km), 3코스 정직길은 생활관 맞은편에서 본관(0.5km) 맞은편까지 총 2.5km다. 각 코스

에는 편의시설(벤치, 이정표) 및 안전시설(안전펜스)을 갖춰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대학 전체를 관광하며 걷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우리 대학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금오올레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문화캠퍼스로 나아가갈 예정이다.



〈 운영시간 _ 평일기준 〉

- 학생회관 쿵스켓(편의점) 24시간(유·무인 병행)
- 생활관 쿵스켓(편의점) 08:00 ~ 23:00
- 학생회관 북카페 08:30 ~ 18:00
- 생활관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08:30 ~ 21:00

대구경북 1호 쿵스켓 (COOPSKET) 오픈

대학 편의시설 개선 일환
학생회관 편의점, 24시간 유·무인 운영

우리 대학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내 편의점이 리뉴얼을 거쳐 지난 2월 새로 문을 열었다.

현재 학생회관 및 생활관 두 곳에 위치하고 있는 편의점의 새로운 이름은 쿵스켓(COOPSKET)으로 대구·경북 1호점이다. 대학 캠퍼스 내 편의점 혁신을 위해 대학생협동조합 연합회와 이마트24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리뉴얼을 실시하게 됐다. 쿵스켓은 생협의 'COOP'와 장바구니 'Basket'의 합성어로 생협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란 뜻이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유·무인 시스템이 도입되어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보다 넓은 휴게 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품목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했으며 생협조합원 10% 할인, 통신사와 유통사의 포인트 할인 및 적립 등의 혜택도 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했던 택배 업무는 생활관과 학생회관 쿵스켓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생활관 푸름관 1동 지하에는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 개점되어 생활관, 글로벌관, 산학협력관, 국제교육관과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추가 및 쿵스켓 리뉴얼 등 대학 편의시설 개선으로 이를 이용하는 교내 구성원들의 만족도 및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1월 안은솔 작가 초대전

전시회명 'Projection', 한국화 40여 점 전시

2021년 금오공대갤러리 첫 전시로 안은솔 작가 초대전이 열렸다. 전시회명은 'Projection'이며 한국화 40여 점이 전시됐다.

작가는 아크릴 푸어링* 기법을 이용해 정형화되지 않은 이미지를 한지 등의 캔버스에 그려냈다. 구조화되거나 정해지지 않은 형상에서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해석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투사작용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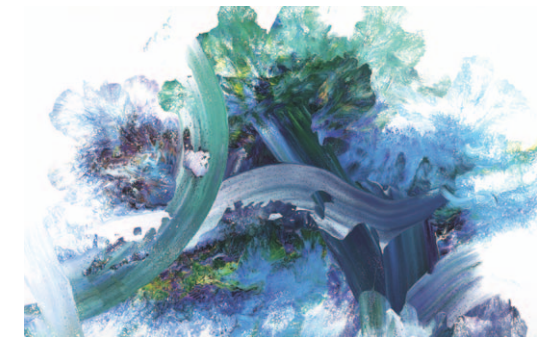
* 아크릴 푸어링(Acrylic Pouring)

아크릴 물감을 물 등의 재료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캔버스에 부어 작업하는 기법. 의도성이 담겨있는 구상 작품과는 달리 물감이 흘러내리는 우연성에 의존하는 추상 작업

안은솔 작가는 “같은 대상을 보고 있더라도 저마다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모두 다른 것을 본다고 정의할 수 있다”며, “하나의 관점으로 치부되는 가치관을 경계하여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보다는 흔들리더라도 계속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대 예술대학 미술학과(한국화 전공) 및 미술학과 석사 졸업,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

-개인전 5회를 비롯해 부산미술제, 부산한국화전 등 약 3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 국제공모전 전일제 특선(2010)을 비롯해 제25회 대한민국 한국화대전(2013) 등 수상





2월 김동석 작가 초대전

석과불식(碩果不食) 주제, 〈어머니의 사계〉 시리즈 등 회화 30여 점 전시

2월에는 30여 년간 화가의 길을 걸어온 김동석 작가의 대표적인 회화 30여 점이 전시됐다. ‘석과불식(碩果不食)’을 주제로 한 전시회에는 작가의 초기 작품 〈어머니의 사계(四季)〉 시리즈를 비롯해 ‘씨앗’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였다.

김동석 작가는 “‘석과불식’은 가지 끝에 남아있는 마지막 씨 과실을 먹지 않고 두어 새로운 씨를 틔우게 한다는 뜻으로, 새로운 생명이 재탄생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땅 속 깊은 곳에서부터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와 온 힘을 다해 새싹을 피어내는 씨앗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도 강한 의지와 희망으로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작품에 담았다”고 말했다.



- 추계예술대 서양화과와 동국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 동국대, 전남대, 추계예술대 등 외래교수 역임, 현재 전업 작가로 활동
- 개인전 20여 회, 아트페어 25회, 단체전 500여 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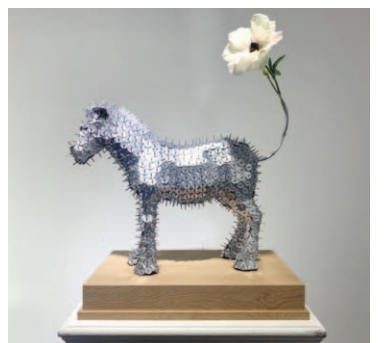


3월 서동진 작가 초대전

전시회명 ‘기호품(Favorite Item)’ 조소 및 설치 작품 40여 점 전시

서동진 작가의 작품 소재는 의자, 시계, 신발과 같은 기호품과 동·식물 등 주로 일상에서 흔히 접하고 마주치는 것들이다. 흔히 볼 수 있는 기호품을 압정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물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관객과 공유하고자 한다.

서동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는 ‘압정이 잔뜩 박힌 의자’를 예로 들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의자에 압정을 잔뜩 박아 편안하지 않도록 풀어내어 인생의 수많은 순간이 주는 역설과 균열, 충돌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이번 전시를 찾는 관람객들도 하나의 사물이 가지는 양면성을 통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이해하고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중앙대 예술대학 조소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 졸업
- 한국미협포항지부, 중앙조각회 등 활동, 포항 다무포 교래마을 꾸미기 및 구룡포 문화마을프로젝트 등 공공조형물 설치 다수 참여
- 제6회 포항아트페스티벌 대상(2005), 제12회 불빛미술대전 특별상(2017) 등 수상

2020년 BEST 대출도서

집계기간 : 2020. 1. 1. ~ 12. 31.

1~10위

- 1 그라자 갑자기 발명가가 나타났다 겐리 호 알트슬러 인터뷰 2005
- 2 아몬드 손원평 창비 2017
- 3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1 채사장 웨일북 2020
- 4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인플루엔셜 2014
- 5 세 열간이 체탄 바깥 북스퀘어 2011
- 6 흥망으로 본 세계의 역사 박인호 보고서 2012
- 7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2015
- 8 이태원 클라쓰 광진 영컴 2017-2019
- 9 과학기술과 사회 박해광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 10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0 채사장 웨일북 2019



11~20위

- 11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피터슨 메이븐 2018
- 12 여행의 이유 김영하 문학동네 2019
- 13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신소재 사토 겐타로 북라이프 2019
- 14 기억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2020
- 15 야밤의 공대생 만화 맹기완 뿌리와이파리 2017
- 16 총, 군, 쇠 제러드 다이아몬드 문학사상사 2012
- 17 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 아름다운사람들 2013
- 18 팀 개발을 위한 Git GitHub 시작하기 정호영 한빛미디어 2020
- 19 정이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미라엔 2018
- 20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을유문화사 2018

21~30위

- 21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허블 2019
- 22 장길산 황석영 창비 2004
- 23 내일의 부 김정섭 트러스트박스 2020
- 24 1cm다이빙 장태수 FKA 2020
- 25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야쿠마루 가쿠 북플라자 2017
- 26 위대한 개츠비 스콧 피츠제럴드 민음사 2010
- 27 죽음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2019
- 28 군협지 와룡생 생각의 나무 2002
- 29 삼국지 조조전 왕샤오레이 다연 2017
- 30 미생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2012-2017

31~40위

- 31 넛지 리처드 탈러 리더스북 2019
- 32 (설민석의) 삼국지 설민석 세계사 2019
- 33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2 채사장 웨일북 2020
- 34 하루 10분의 기적 KBS 가디언 2010
- 35 총, 군, 쇠 제러드 다이아몬드 문학사상 2013
- 36 피프티 퍼플 정세랑 창비 2016
- 37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혼 2018-2019
- 38 분신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2019
- 39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문학동네 2020
- 40 달러구트 꿈 백화점 이미예 팩토리나인 2020

41~50위

- 41 90년생이 온다 임흥택 웨일북 2018
- 42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2012
- 43 행복한 명작 읽기 매튜 보몬트 외 지음 다락원 2011
- 44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슈밥 새로운현재 2016
- 45 (인사담당자의 눈을 10초 만에 사로잡는) 이공계 합격 자소서 기술 주영훈 렛유인북스 2020
- 46 돈의 속성 김승호 스노우폭스박스 2020
- 47 신조려려 김용 김영사 2005
- 48 언어의 온도 이기주 말글터 2016
- 49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쌤앤파커스 2012
- 50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글배우 강한별 2019

유현준 건축가 초청,
‘어디서 살 것인가’ 주제 특강

지역민과 함께하는 제6차 열린 문화특강 개최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지역사회 문화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유현준 건축가를 초청해 ‘제6차 열린 문화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2020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으로 지역 시민을 위해 마련한 여섯 번째 시간이다.

지난달 19일 대학 디지털관에서 열린 특강은 ‘어디서 살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은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됐으며 현장에는 사전 신청을 한 30명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석했다.

강연에서는 ‘1인가구의 증가, 서울 핫플레이스의 변천사, TV를 많이 보는 이유, 반쪽짜리 공원 센트럴파크, 어떤 거리는 왜 더 걷고 싶은가’ 등의 소주제들을 통해 공간을 대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그에 따라 변화된 사회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야

기들이 이어졌다. 유현준 건축가는 “디자인을 바꾸면 사회가 바뀌고,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위한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간과 디자인을 조성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현준 건축가는 연세대 건축공학과 졸업 후 하버드와 MIT 대학원에서 건축설계 석사학위를 받았다. 알쓸신잡2, 어쩌다 어른 등 TV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했으며,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살 것인가」 등의 저서가 있다. 현재 스페이스 컨설팅그룹 및 유현준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가로 있다.



김상욱 물리학자 초청,
‘우리는 왜 과학을 해야 하나’ 주제 특강

지역인재 진로 및 인성특강 개최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 온라인 송출 통해 공유

물리학자로 알려진 김상욱 경희대 교수를 초청하여 ‘우리는 왜 과학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으로 진로탐색 및 과학에 대한 이해도 함양을 위해 입학본부 주관으로 시행됐으며, 우리 대학 입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19일까지 송출됐다.

김상욱 교수는 ‘왜 과학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에 대해 “과학은 물질적 증거에 기반하여 보편적인 법칙을 추론하는 것으로 우주와 자연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과학도 교양으로 인식하여 우리의 삶에 끼치는 중요성과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욱 교수는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JTBC 김제동의 토틈유, tvN 알쓸신잡3 외 다수 방송에 출연했다. 주요저서로 「떨림과 울림」, 「뉴턴의 아틀리에」 등이 있다.



후원의 집 소개

♥ (재) 금오공과대학교발전기금 후원의 집을 소개합니다.

가계복집	한식 (복어)	공대상가	상가
경북 구미시 신시로16길 49		경북 구미시 대학로 39	
054) 462-0096	대표자 : 김영자	010-6603-3007	대표자 : 황태진
금오산성숯불갈비	한식	금오산 한우마을	한식
경북 구미시 산업로 224		경북 구미시 옥계남로 7-5	
054) 457-7500	대표자 : 윤숙자	054) 473-8688	대표자 : 김현숙
베스트샵옥계점	LG이전	미쉐린타이어경북서브스센터	타이어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24길 49		경북 구미시 왕산로 198	
054) 474-8877	대표자 : 황원제	054) 462-9012	대표자 : 김창일
삼성특판	가전	본도시락 옥계점	한식
경북 구미시 화신로 46		경북 구미시 옥계북로 74	
054) 464-4141	대표자 : 장세광	054) 474-4285	대표자 : 박희열
신념종합상사	건축 자재	성피부과	의료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35길 12-12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149(원평동) 5타워 7-8층	
054) 475-0980	대표자 : 박충근	054) 455-3393	대표자 : 성준제
에코숨	제조	신동아인쇄기획	제본 인쇄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경북산학융합본부 211호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32길 5-2	
054) 471-4491	대표자 : 석주윤	054) 464-3500	대표자 : 김진순
한우명가 육림촌	한식	(주) 성운투어	여행사
경북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982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31길 6, 2층	
054) 474-3030	대표자 : 조정운	054) 473-0473	대표자 : 정성윤
(주)해피투게더투어	여행사	포항가자미회	일식(회)
경북 구미시 아은로 455 삼성빌딩 3층		경북 구미시 신시로16길 97	
010-8923-9863	대표자 : 김경남	054) 451-3433	대표자 : 이정태

※ 발전기금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의 집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발전후원금 약정을 감사드립니다.

월 별	약 정 액
2020. 12. 1. ~ 2021. 2. 28.	152,400천원

♥ 약정하신 분

(단위 : 원)

(주)에이시스템	30,000,000	김주민	200,000	김민욱	100,000	박상민	100,000	오태준	100,000	정민태	100,000
최은오	25,000,000	김찬석	200,000	김민재	100,000	박상현	100,000	우연임	100,000	정병철	100,000
이재건,이순남	8,000,000	김찬영	200,000	김보미	100,000	박선민	100,000	유준하	100,000	정보근	100,000
김동성	5,000,000	김태현	200,000	김보성	100,000	박선영	100,000	유혜수	100,000	정성웅	100,000
서인숙	5,000,000	김호철	200,000	김부건	100,000	박승진	100,000	윤찬수	100,000	정솔미	100,000
(사)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3,000,000	김홍기	200,000	김상훈	100,000	박영주	100,000	이건형	100,000	정수현	100,000
김희준	2,500,000	박도현	100,000	김석영	100,000	박운우	100,000	이경섭	100,000	정신우	100,000
곽현근	2,000,000	박아람	200,000	김성진	100,000	박원수	100,000	이경신	100,000	정연희	100,000
서경도	2,000,000	박희창	200,000	김성태	100,000	박재구	100,000	이덕오	100,000	정연희	100,000
신경옥	2,000,000	송정호	200,000	김성현	100,000	박재연	100,000	이도환	100,000	정은정	100,000
황영민	2,000,000	오정목	200,000	김소정	100,000	박재현	100,000	이동원	100,000	정인기	100,000
손창식	1,200,000	윤세준	200,000	김수연	100,000	박정우	100,000	이동혁	100,000	정재완	100,000
김경완	1,000,000	이나연	200,000	김수윤	100,000	박정태	100,000	이동현	100,000	정재호	100,000
김영	1,000,000	이순동	200,000	김승현	100,000	박지우	100,000	이민지	100,000	정재호	100,000
박종익	1,000,000	이영송	200,000	김신희	100,000	박진기	100,000	이민형	100,000	정진욱	100,000
우부선	1,000,000	이지훈	200,000	김애란	100,000	박창민	100,000	이상도	100,000	정창화	100,000
정인희	1,000,000	이찬호	200,000	김연옥	100,000	박창민	100,000	이상목	100,000	정하종	100,000
한들(안재형)	1,000,000	이희택	200,000	김영기	100,000	박태욱	100,000	이상민	100,000	정혜인	100,000
권승운	700,000	장영숙	200,000	김영빈	100,000	박혜민	100,000	이상엽	100,000	조명훈	100,000
조병규	700,000	장예지	200,000	김영훈	100,000	배성해	100,000	이성환	100,000	조일호	100,000
권용대	600,000	정우영	200,000	김예은	100,000	배성호	100,000	이상훈	100,000	지용택	100,000
김기형	500,000	정준우	200,000	김용우	100,000	배성숙	100,000	김영기	100,000	배성해	100,000
김재란	500,000	조순덕	200,000	김용재	100,000	백범준	100,000	김영빈	100,000	배성호	100,000
류시원	500,000	최미경	200,000	김용호	100,000	백승재	100,000	김영훈	100,000	배성숙	100,000
박범규	500,000	허성현	200,000	김우현	100,000	백자원	100,000	김예은	100,000	배범준	100,000
손기영	500,000	황태웅	200,000	김용빈	100,000	백재경	100,000	김용우	100,000	백지원	100,000
송은숙	500,000	강경돈	100,000	김윤미	100,000	백준환	100,000	김용재	100,000	백재경	100,000
유정환	500,000	강나연	100,000	김윤서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자원	100,000
이강국	500,000	강다애	100,000	김은호	100,000	백자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이금순	500,000	강동훈	100,000	김은아	100,000	백재경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자원	100,000
이상현	500,000	강상훈	100,000	김은영	100,000	백준환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이정숙	500,000	강선량	100,000	김은주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최선희	500,000	강준하	100,000	김지영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홍석표	500,000	강준희	100,000	김재강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김기만	400,000	강형구	100,000	김재환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김민기	400,000	고미옥	100,000	김재훈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김우현	400,000	공영관	100,000	김정철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김장옥	400,000	곽동현	100,000	김조균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김정태	400,000	박민수	100,000	김주혜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남유선	400,000	박한철	100,000	김준연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박경미	400,000	구나일	100,000	김지백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박정훈	400,000	권두일	100,000	김진양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신상하	400,000	권예은	100,000	김진용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안종탁	400,000	권은영	100,000	김진우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오상우	400,000	권희라	100,000	김창엽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윤강희	400,000	김경서	100,000	김태현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이선우	400,000	김교상	100,000	김태형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이재민	400,000	김귀영	100,000	김태호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이현경	400,000	김규원	100,000	김태호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임동숙	400,000	김근홍	100,000	김태훈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정영환	400,000	김기형	100,000	김현정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조은숙	400,000	김나연	100,000	김현주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지광운	400,000	김나연	100,000	김혜경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금오도예	300,000	김다빈	100,000	김혜진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김원현	300,000	김다은	100,000	김희영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김효석	300,000	김대하	100,000	남민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박경민	300,000	김대한	100,000	남방식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박주성	300,000	김동혁	100,000	남성현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서재준	300,000	김동현	100,000	남지현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송지혜	300,000	김동현	100,000	노경록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이상도	300,000	김명진	100,000	노태준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이영동	300,000	김문필	100,000	노현주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조준현	300,000	김미경	100,000	류대성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조현민	300,000	김미선	100,000	류분란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채유경	300,000	김민국	100,000	류원혁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하진영	300,000	김민규	100,000	류현식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구베스트로(중계사무소(영양))	200,000	김민규	100,000	민주현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김덕진	200,000	김민범	100,000	박강민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김설아	200,000	김민성	100,000	박도현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김시우	200,000	김민수	100,000	박동연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김종대	200,000	김민우	100,000	박민제	100,000	백지원	1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 발전기금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 별	모 금 액
2020. 12. 1. ~ 2021. 2. 28.	151,630천원

♥ 기탁하신 분

(단위 : 원)

(주)에이시스템	30,000,000	김주민	200,000	김민우	100,000	박상현	100,000	유혜수	100,000	정수현	100,000
최은오	25,000,000	김찬석	200,000	김민욱	100,000	박선민	100,000	윤찬수	100,000	정신우	100,000
이재건,이순남	8,000,000	김찬영	200,000	김민재	100,000	박선영	100,000	이건형	100,000	정연호	100,000
김동성	5,000,000	김태현	200,000	김보미	100,000	박승진	100,000	이경섭	100,000	정연희	100,000
서인숙	5,000,000	김호철	200,000	김보성	100,000	박영주	100,000	이경신	100,000	정은정	100,000
(사)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3,000,000	김홍기	200,000	김부건	100,000	박운우	100,000	이덕오	100,000	정인기	100,000
김희준	2,500,000	박도현	200,000	김상훈	100,000	박원수	100,000	이도환	100,000	정재완	100,000
곽현근	2,000,000	박아람	200,000	김석영	100,000	박재구	100,000	이동원	100,000	정재호	100,000
서경도	2,000,000	박희창	200,000	김성진	100,000	박재연	100,000	이동혁	100,000	정지호	100,000
황영민	2,000,000	본도시탁육계점	200,000	김성태	100,000	박재현	100,000	이동현	100,000	정진욱	100,000
김경완	1,000,000	송정호	200,000	김성현	100,000	박정우	100,000	이민지	100,000	정창화	100,000
김영	1,000,000	오정목	200,000	김소정	100,000	박정태	100,000	이민형	100,000	정하종	100,000
박종익	1,000,000	윤세준	200,000	김수연	100,000	박지우	100,000	이상도	100,000	정혜인	100,000
우부선	1,000,000	이나연	200,000	김수윤	100,000	박진기	100,000	이상목	100,000	조명훈	100,000
정인희	1,000,000	이순동	200,000	김승현	100,000	박창민	100,000	이상민	100,000	조일호	100,000
한들(안재형)	1,000,000	이영송	200,000	김신희	100,000	박창민	100,000	이상엽	100,000	지용택	100,000
권승운	700,000	이지훈	200,000	김애란	100,000	박태욱	100,000	이상현	100,000	신종기	100,000
조병규	700,000	이찬호	200,000	김연옥	100,000	박태민	100,000	이상훈	100,000	차현준	100,000
권용대	600,000	이희택	200,000	김영기	100,000	배성해	100,000	이상훈	100,000	채규태	100,000
김기형	500,000	장영숙	200,000	김영빈	100,000	배성호	100,000	이서영	100,000	채민국	100,000
김재란	500,000	장예지	200,000	김영훈	100,000	배영숙	100,000	이서경	100,000	채정모	100,000
류시원	500,000	정우영	200,000	김예은	100,000	백범준	100,000	이상민	100,000	천상희	100,000
박범규	500,000	정준우	200,000	김용우	100,000	백승재	100,000	이상은	100,000	천혜성	100,000
송기영	500,000	조소덕	200,000	김용재	100,000	백지민	100,000	이소연	100,000	최규하	100,000
송은숙	500,000	허성현	200,000	김용호	100,000	백재경	100,000	이순덕	100,000	최근영	100,000
신경옥	500,000	화영식당	200,000	김우현	100,000	백준환	100,000	이순진	100,000	최문보	100,000
유정환	500,000	황태웅	200,000	김웅빈	100,000	백지원	100,000	이승현	100,000	최미경	100,000
이강국	500,000	김용원	150,000	김윤미	100,000	변영우	100,000	이승현	100,000	최미경	100,000
이금순	500,000	강변언진종합상사	150,000	김요서	100,000	부창섭	100,000	이영기	100,000	최민서	100,000
이상현	500,000	김년도	100,000	김요호	100,000	서석찬	100,000	이예민	100,000	최범규	100,000
이정숙	500,000	강나원	100,000	김은아	100,000	서승민	100,000	이원필	100,000	최병훈	100,000
최신희	500,000	강다예	100,000	김은영	100,000	서지원	100,000	이윤경	100,000	최성숙	100,000
홍석표	500,000	강동훈	100,000	김은주	100,000	서지은	100,000	이은주	100,000	최수민	100,000
김진순	400,000	강상훈	100,000	김지영	100,000	석성희	100,000	이창욱	100,000	최사은	100,000
김기만	400,000	강신랑	100,000	김재강	100,000	석유빈	100,000	이재용	100,000	최자민	100,000
김민기	400,000	강준하	100,000	김재환	100,000	석지원	100,000	이재원	100,000	최재원	100,000
김우현	400,000	강준희	100,000	김재훈	100,000	성락만	100,000	이정숙	100,000	최준혁	100,000
김정옥	400,000	강형구	100,000	김정철	100,000	성준호	100,000	이정원	100,000	최준혁	100,000
김정태	400,000	고미옥	100,000	김조곤	100,000	성지훈	100,000	이정은	100,000	최찬주	100,000
남유선	400,000	공영관	100,000	김주혜	100,000	손지연	100,000	이주형	100,000	최현구	100,000
박경미	400,000	곽동현	100,000	김준연	100,000	손주곤	100,000	이주화	100,000	최혜민	100,000
박정훈	400,000	곽민수	100,000	김지백	100,000	손지영	100,000	이준겸	100,000	최혜민	100,000
신상하	400,000	곽한걸	100,000	김진양	100,000	손해운	100,000	이준하	100,000	추영호	100,000
안종탁	400,000	구나형	100,000	김진용	100,000	손환빈	100,000	이지민	100,000	추재찬	100,000
오성우	400,000	권도일	100,000	김진우	100,000	송주환	100,000	이지운	100,000	표수한	100,000
윤강희	400,000	권예은	100,000	김창일	100,000	송준혁	100,000	이진구	100,000	피민창	100,000
이선우	400,000	권은영	100,000	김태현	100,000	신규리	100,000	이진아	100,000	피승호	100,000
이재민	400,000	권희라	100,000	김태형	100,000	신기찬	100,000	이찬기	100,000	한건희	100,000
이현경	400,000	김경서	100,000	김태호	100,000	신동일	100,000	이창윤	100,000	한규필	100,000
임명숙	400,000	김교상	100,000	김태호	100,000	신민건	100,000	이태한	100,000	한명희	100,000
정영환	400,000	김규영	100,000	김태훈	100,000	신민정	100,000	이현호	100,000	한성진	100,000
조은숙	400,000	김규원	100,000	김현정	100,000	신상민	100,000	이현종	100,000	한일조	100,000
지광운	400,000	김근홍	100,000	김현수	100,000	신유미	100,000	이효진	100,000	한호수	100,000
금오포배	300,000	김기형	100,000	김혜경	100,000	신재광	100,000	임재준	100,000	해성팔레트	100,000
김원현	300,000	김나연	100,000	김혜진	100,000	신종현	100,000	임준호	100,000	허윤옥	100,000
김효석	300,000	김나연	100,000	김혜영	100,000	신현수	100,000	장명진	100,000	허준수	100,000
박경민	300,000	김다빈	100,000	남민	100,000	신혜웅	100,000	장선희	100,000	허진호	100,000
박주성	300,000	김다은	100,000	남발식	100,000	신용수	100,000	장수혁	100,000	한소이	100,000
서재준	300,000	김태하	100,000	남성현	100,000	심준현	100,000	장수환	100,000	한정희	100,000
송지혜	300,000	김태한	100,000	남지연	100,000	안경규	100,000	장승환	100,000	홍관식	100,000
이상도	300,000	김동혁	100,000	노정록	100,000	안재환	100,000	장메진	100,000	홍성훈	100,000
이영동	300,000	김동현	100,000	노태춘	100,000	양재한	100,000	장용찬	100,000	홍순석	100,000
조준현	300,000	김동현	100,000	노현찬	100,000	임동환	100,000	장인호	100,000	홍정표	100,000
조현빈	300,000	김명진	100,000	류대성	100,000	여동준	100,000	장재근	100,000	황승혜	100,000
채유경	300,000	김문필	100,000	류분란	100,000	여성호	100,000	장현우	100,000	이재민	60,000
포항기차미회(이정배)	300,000	김미경	100,000	류원혁	100,000	여영민	100,000	정화윤	100,000	정재준	60,000
하진영	300,000	김미선	100,000	류현식	100,000	오세빈	100,000	정성운	100,000	한희종	60,000
구배스트로점(사우나영장)	200,000	김민국	100,000	민주현	100,000	오영택	100,000	전혜선	100,000	안배옥	40,000
금오스탈우마을	200,000	김민규	100,000	박강민	100,000	오재달	100,000	정민태	100,000	사공유덕	30,000
김덕진	200,000	김민규	100,000	박도현	100,000	오재혁	100,000	정병철	100,000		
김설아	200,000	김민범	100,000	박동연	100,000	오태준	100,000	정보근	100,000		
김시우	200,000	김민성	100,000	박민제	100,000	우연민	100,000	정성웅	100,000		
김종태	200,000	김민수	100,000	박상민	100,000	유준하	100,000	정준미	100,000		

♥기탁자에 대한 예우

순번	예우내용	10억원	5억원	1억원	5천만원	1천만원	5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50만원	10만원	예우신청 기준금액
1	홍상 또는 기념비	○										일시금
2	시설물 명칭 부여	○	○	○								일시금
3	장학기금 명칭 부여	○	○	○								일시금
4	학교행사 초청	○	○	○								누적금
5	총장명의 감사패 증정	○	○	○	○							일시금
6	명절선물	평생	평생	평생	5회	1회						누적금
7	언론홍보(보도) (기탁자 희망시)	○	○	○	○	○						일시금
8	후원자 현황판 이름 각인	○	○	○	○	○						누적금
9	해오름연수원 (본인) 교직원 요금적용	평생	평생	20년	10년	2년	1년					누적금
10	기부 감사기념품 증정	○	○	○	○	○	○	○	○			일시금
11	골프학습관 이용료 면제 및 할인(본인)	100%	100%	100%/50%	100%/50%	100%/50%	100%/50%	50%	50%			누적금
		평생	평생	20년/평생 (택일)	10년/평생 (택일)	2년/10년 (택일)	1년/5년 (택일)	2년	1년			
12	차량 무료출입 등록(본인)/(1대)	평생	평생	평생	25년	5년	2년 6개월	1년	6개월			누적금
13	발전기금 달력 발송	평생	평생	평생								누적금
					10년	2년	1년	1년	1년	탁상용 달력		일시금
14	평생교육원 교육비 할인	100%	100%	100%	50%	30%	20%	10%	10%	10%		누적금
		평생	10년	5년	5년	3년	2년	2년	1년	6개월		
		(본인 및 배우자)				(본인)						
15	도서관 자료 대출/열람 (본인 또는 지정 1인)	평생	평생	평생	평생	10년	5년	2년	1년	6개월		누적금
16	통학버스 이용권 제공 (본인 또는 지정 1인)	평생	평생	평생	평생	10년	5년	2년	1년	6개월	1개월	누적금

※ 유의사항

1. 예산 범위 내 혜택 제공이 가능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2. 각 예우별로 본인이 신청한 날부터 적용하며, 혜택 받은 예우금액은 기탁 총금액에서 소멸됨

3. 누적금액 기준 예우 시 기탁한 총금액에서 기 제공 예우금액을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약정 금액은 제외)

4. 기탁금액과 예우금액이 동일한 경우 아래 각 항목은 중복 신청이 불가함

1) ①골프학습관 이용료, ⑭평생교육원 교육비 할인, ⑮통학버스 이용권 제공 (1개 예우 선택)

2) ⑫차량 무료출입 등록, ⑯통학버스 이용권 제공 (1개 예우 선택)

5. 평생교육원 골프아카데미 강좌는 교육비 할인에서 제외됨

6. 상기 예우는 2011년 1월 이전 기탁자도 동일하게 적용하나, 2014년 이전 교수의 연구간접경비는 적용 제외

발전기금 모금 안내

한마음 한뜻으로 대학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은 금액에 관계없이 금오공과대학교의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동문, 학부모, 교직원, 재학생, 독지가, 기업체, 기관, 단체 등 누구든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탁구분

- 일반기탁 :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대학에 일임
- 목적기탁 : 대학 내 특정학과 (부서) 등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기탁
 - 목적기탁 기부금의 10%는 일반기탁 기부금으로 공제 (전환) 됩니다.
 - CMS자동이체와 10만원 미만 일시금의 경우에는 공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발전기금의 종류 및 용도

대학사랑기금 (대학에 일임)	대학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사용하도록 금오공과대학교에 용도 위임
장 학 기 금	우수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도와 내실 있는 교육 실현
학술연구기금	학술연구 지원, 국제 학술교류 지원, 저명교수 초청 지원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대학 교육 실현
도 서 기 금	국내 · 외 학술도서의 확충으로 교육의 질적인 향상 도모
시설확충기금	부족한 교육 · 연구 시설을 확충하여 교육 여건 개선
연구기자재기금	학문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최신 기자재 구입 및 기자재 유지 · 보수비를 지원하여 교육 및 과학 · 기술분야의 연구활동 활성화 추구
기 타	기부자가 희망하는 경비 등

발전기금 약정방법

온라인 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kumoh.ac.kr) “약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팩스, 이메일, 우편 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 > “참여방법 안내” > “약정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 방문 약정	· 전화상담 : 054-478-7080 · 주소 : (39177) 구미시 대학로 61, 본관 601호 발전기금 사무국

발전기금 납부방법

무통장입금 (예외이체)	농협은행 785-01-037878 공대발전 후원회로 입금하시고 입금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Tel 054-478-7080)
CMS 자동이체	발전기금 약정서 작성시 자동이체 (CMS)를 신청하시면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자동이체 가능

